

성공의 공식

© 2003 년 8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최근 몇 년 간 성경적 성공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퍼져, 탐욕과 정욕을 덮는 신학적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아께서 성전의 환전상들의 상을 엮으셨던 것과 같은 분노를 그러한 가르침들을 인해 보이고 계신지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경적 변영의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매일의 성경 묵상

성경적 성공을 위한 제일의 원칙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토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르침, 혹은 지시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공동체 (혹은 교회)에 나아가 설교를 한번 들음으로 영적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든 성공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단순한 훈련을 매일 하면 네 길을 인도하여 번영케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25년 이상 제 삶에서 매일의 성경 묵상보다 더 중요한 습관은 없던 것 같습니다.

또래들의 압력을 물리침

우리는 말씀만 묵상해선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 사회는 일반적으로 그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길 원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 가운데 속하고 싶어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또래들의 압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한 후에도 미묘하지만 악한 영향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의 영향력이 본질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성공하려면, 우린 모든 것을 긍정해선 안 됩니다. 우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신 이 부정 명령이 세 번 반복됩니다. 걷지 마라, 서지 마라, 그리고 앉지 마라. 여기엔 직장 친구들, 이웃, 식구들, TV, 연예,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나쁜 부류의 친구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올바른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 있느냐가 우리의 윤리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전 15:33).

말씀을 묵상하라는 긍정 명령은 한 번 나타났습니다. 매일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줄 긍정적 기회보다도 “아니오”라고 해야 할만한 부정적 기회들을 세 배나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회적 영향에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요일 2:15, 약 4:4). 예수아께선 우리가 매일의 자기 중심적인 감성을 부인해야 그 분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눅 9:23).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 26:39)”였습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궁극적 모형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하라

성경 묵상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행하는 만큼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8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묵상은 그저 신비적인 것으로 우린 스스로를 기만하는 꼴이 됩니다 (약 1:22). 성경 묵상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우린 신학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에 변화를 낳는 실제적 믿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며, 심판 날에 우린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후 5:10, 계 20:12-13).

성경 묵상은 우리 마음 속의 상상만이 아니라, 우리 입의 말의 문제입니다 (시 19:14). 히브리어로 헤게라는 단어는 마음의 묵상과 언어적 표현 둘 다를 이룹니다. 위 여호수아 1 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린 어딜 가든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신 6:7).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매일의 성경 묵상과 우리 태도에 나타나는 도덕적 변화로 뒷받침될 때, 우리의 말은 기적적인 수준의 영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 우리의 말은 산을 움직이며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막 11:22-23). 우린 우리의 말을 성경의 기준에 확실히 맞도록 하지 않고는 영적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행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We must both walk the walk and talk the talk).

권세를 향한 태도

성공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가치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으며, 신약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6:1-3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이 계명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일반적인 성경적 태도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권세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해 우릴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권세에 순복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더 쉽게 얻을 것입니다. 이 복종의 태도는 세상에 만연한, 권세에 대한 반역과 저항의 영과는 영 반대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권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우리가 번영하기를 갈망하시며 우리의 성공을 돕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은 우리의 생각과 꽤 다릅니다. 예수아께서는 인생의 성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눅 12:15). 하나님의 우선순위엔, 영적인 것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혼이요 그 다음이 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것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영원한 영의 것들을 훨씬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재정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 윤리적 가치들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33).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적 세계에 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창조주께서 가장 위에 계시며, 그 다음으로 피조물이 오기만 하면, 우리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고 모든 행사에 성경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Shaul Byunghyun Go